

# 신민아, '디바'로 연기 변신... "민낯 보이는 느낌... 두려웠다"

잔머리 없이 올려 묶은 머리와 화장기 없는 민낯, 밝고 사랑스러운 이미지가 강한 신민아가 미스터리 스릴러 '디바'로 연기 변신을 예고했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 (2014) 이후 6년 만의 스크린 복귀다.

신민아는 13일 '디바' 온라인 제작보고회에서 "사나리오가 강렬했다"고 운을 뗐다.

'디바'는 다이빙계의 디바 이영(신민아 분)이 의문의 사고를 당한 뒤 잃은 기억을 되찾으면서 진실을 알게 되는 내용의 미스터리 스릴러다.

장르적 틀 안에서 캐릭터 각각의 섬세한 내면에 주목한다.

신민아는 극 중 대한민국 최고의 다이빙 실력을 지닌 이영 역을 맡았다.

절친한 친구 '수진'이 의문의 사고로 사라진 이후, 자신이 몰랐던 '수진'의 이면을 알게 되면서 내면에 감춰왔던 욕망과 광기를 분출하는 인물이다.

짧은 시간 동안 최고의 다이빙 선수처럼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다는 그는 실제로 운동선수처럼 보이기 위해 근육량을 늘리고, 고소공포증을 극복하고 실제 다이빙 기술을 구사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신민아는 "물에서 촬영하는 장면이 많았다. 수영복도 입고 머리로 질끈 묶고 해서 민낯을 보이는 듯한 느낌 때문에 처음에는 낯선 것보다 이렇게 나와도 되나 하는 두려움이 컸다"며 "감독님이 수영복이 아니라 전투복으로 생각하라고 하시더라. 촬영에 임하면서 점점 마음을 다잡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 6년 만의 스크린 복귀...미스터리 스릴러 첫 도전

"디바, 감정선 따라가는 재미가 있다"...9월 개봉

이어 "이번 영화는 감정선을 따라가는 재미가 있다. 그것을 이입할 수 없으면 메시지가 흔들릴 수 있다고 느꼈다"며 "디테일한 감정선을 표현하고, 캐릭터에 공감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를 통해 연기 변신에 나선 소감을 묻는 질문에서는 "대중들이 생각할 때 로코 이미지가 강하지만 스릴러는 많이 보여주지 못한 장르다 보니 하면서 신선한 재미가 있었다"며 "(앞으로) 장르 가리지 않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고 답했다.

영화 '가려진 시간' '임투기' 각본을 쓰고, '택시운전사'를 각색한 조승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조 감독은 신민아 배우에 대해 "왜 신민아 배우가 이런 장르를 처음 하는 걸까? 이렇게 잘 어울리는 데라는 생각을 했다"며 "영화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도 바로 신민아의 새로운 얼굴, 완벽한 이미지 변신이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다이빙을 소재로 한 미스터리 스릴러 한국영화는 이 작품이 처음"이라며 "최고가 되기 위해 추락해야 한다는 점이 매력적인 스포츠라고 생각했다. 단순히 영화의 소재가 아니라, 주인공의 내면 심리 이자 넓게는 영화의 전체 스토리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영화 제목 '디바'는 박찬욱 감독이 추천

했다고. 조 감독은 "제목 짓는 것이 어려워 박찬욱 감독에 시나리오 리뷰를 부탁했는데 디바 어떻냐고 하시더라"며 "디바가 여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란에서는 '전설 속의 악귀'라는 뜻이 있다. 이중적인 의미가 마음에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영과 절친한 동료 선수 수진 역은 이유영이 연기했다.

드라마 '비밀의 숲' '슬기로운 감빵생활'로 알려진 이규형이 다이빙 코치로 분한다.

이규형은 "수진은 속을 알 수 없는 캐릭터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헛갈린다.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수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했다"며 "진짜 마음과 사람들에게 보이는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 가장 어려웠고 중점을 뒀다"고 했다.

이어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작품이었다"며 "다이빙이라는 소재가 스릴러와 만났을 때 짜릿한 느낌을 줬다. 새로운 영화가 나올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힘주었다.

이규형은 "작품을 선택할 때 새로운 모습, 겹치지 않는 캐릭터를 보여주려고 노력한다"며 "이번 작품에서도 전작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9월 개봉.



## '십시일반' 최종회...배우들 종영 소감

웃음·스릴로 4주간 시청자들 사로잡아



'십시일반' 배우들이 13일 종영 소감을 밝혔다.

MBC 수목극 '십시일반'은 유난히 우중충했던 올 여름밤을 웃음과 스릴로 채우며 4주간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화가의 딸 빛나 역의 김혜준은 "빛나의 성장을 통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현장에서 함께

작품을 빚어주신 감독, 스태프, 선배들 덕분에 '십시일반'이 무엇인지도 배울 수 있었다"며 "짧지만 긴 우리 드라마를 시청해 주시고, 함께 추리해 주신 시청자 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빛나의 엄마 오나라는 "감독, 작가, 스태프, 배우 등 좋은 사람들을 알고, 얻게 된 좋은 작품이었다"며 "작품을 보며 함

께 추리하고, 호응해 준 시청자분들과 '십시일반'이라는 작품의 감동적인 커튼콜을 함께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화가를 죽인 진짜 범인이자 그의 전부인 설영 역의 김정영은 "벌써 마지막 방송이라니 아쉽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행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든 일에 원인을 제공한 화가 인호 역의 남문철은 "작품을 사랑해 주신 시청자들과 좋은 환경 속에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준 모든 스태프들께 감사드린다. 곧 좋은 작품으로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화가의 매니저이자 설영의 계획을 함께 한 정욱을 맡았던 이윤희는 "훌륭한 감독과 배우들의 좋은 합이 곧 작품의 완성도를 결정짓는다는 나의 생각을 다시 경험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밝혔다.

신스틸러 가사도우미 박여사 역의 남미정은 "익숙하지 않은 매체에 도전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어려운 일을 행복한 일로 만들어준 감독, 연출진, 스태프들, 선배, 동료 배우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화가의 친동생이자 사기꾼으로 작품 내내 긴장과 웃음을 유발했던 독고철 역의 한수현은 "겨울부터 여름까지, 함께 한 시간이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은 작품이었다"며 "함께 범인이 누군지 추리하며 연기했던 추억, 재미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마다 느낀 뿌듯함과 몽클함이 '십시일반'을 더욱 소중한 세상인들이 의미 주는 것 같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배우가 되어 다시 인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 박주현, 열정과 깡으로 '좀비탐정'

31일 오후 9시 30분 첫 방송

배우 박주현이 '좀비탐정'을 통해 첫 공중파 주연에 도전한다.

오는 31일 오후 9시 30분 첫 방송 예정인 KBS 2TV 새 월화드라마 '좀비탐정'은 부활 2년 차 좀비가 탐정이 되어 자신의 과거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휴먼 코미디 드라마다.

공중파에서 첫 주연을 맡은 박주현은 열정과 깡으로 똘똘 공선지 역으로 분한다. 돌직구 발언은 물론이고 거침없는 액션 연기까지 선보이며 연기 변신에 나선다.

극중 공선지는 미제수사를 위해 부활 2년 차 좀비 김주영(최진혁)과 손을 맞잡게 된다. 개성과 두 캐릭터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공선지의 추리력으로 시너지를 선보일 예정. 공선지의 '깡'과, 아무리 찢리고 맞아도 죽지 않는 좀비 캐릭터 김주영의 화려한 액션까지 더해져 재미를 선사한다.

한편 '좀비탐정'은 지상파-OTT-IPTV가 협업한 첫 오리진 콘텐츠로, KBS, 웨이브, SK브로드밴드 3사가 공동으로 제작자했다. 매주 토요일 웨이브와 B tv에서 2회차가 독점 선 공개된다.

## 레드벨벳 아이린&슬기, 美 '타임 100 톱스' 특별공연

오는 18일 오후 6시



그룹 '레드벨벳'의 유닛 '아이린 & 슬기'가 미국 유명 매체 타임지가 주최하는 화상 대담 행사 '타임100 톱스'(TIME100 Talks)에서 특별 공연한다.

13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이린&슬기는 오는 18일 오후 6시(한국 시간) 타임 공식 홈페이지 및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계되는 '타임 100 톱스'에 유일한 공연자로 참여한다. 토론 후 펼쳐질 클로징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타임100 톱스'는 타임지가 각 분야의 리더들을 소집해 글로벌 문제의 해결책을 조망하고 학제간 행동을 장려하는 연속 화상 대담 시리즈다.

이번에는 UN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

흐스 제 27대 호주 총리 줄리아 길러드, 영화배우 겸 UN 개발계획 친선대사 양자경 등이 참석한다. 글로벌 리더십과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 속 세계인들이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특히, 아이린 & 슬기는 이날 행사에 스페셜 퍼포머로 초청받아 첫 미니앨범 '몬스터' 타이틀 곡 '몬스터' 무대를 선사한다.

아이린&슬기는 지난 7월 발표한 첫 '몬스터'로 각종 음원 및 음반 차트 1위, 음악방송 1위,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세계 50개 지역 1위, 중국 QQ뮤직, 쿠구뮤직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 1위를 기록했다.

## '다만약' 개봉 2주만에 250만 돌파

2위 '오케이마담' 추격

영화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가 개봉 2주 차에도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

14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5일 개봉한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의 누적 관객 수는 전날까지 256만2909명으로 집계됐다.

13일에도 15만2503명을 동원하며 이날 개봉한 엄정화 주연의 코믹액션 '오케이 마담'(약 11만명)을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는 마지막 청부살인 미션 때문에 새로운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인남(황정민 분)과 그를 쫓는

무자비한 추격자 레이(이정재 분)의 처절한 추격과 사투를 그린 하드보일드 액션영화다.

2015년 장편 연출 데뷔작인 스릴러 영화 '오피스'로 칸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초청됐던 흥원찬 감독의 신작이다.

장르적 매력을 극대화한 영화로 리얼한 타격 액션과 강렬한 캐릭터가 돋보인다. '신세계' 이후 7년 만에 재회한 황정민과 이정재가 선보이는 암살자와 추격자 캐릭터는 속도감 있는 전개를 선보이며 긴장감을 자아낸다.

태극 방콕이 전체 분량의 8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이국적 풍경도 눈길을 사로잡는다.